2.『숙종실록』

율곡의 본명인 '李珥(이이)'라는 한자 이름으로 <조선왕조실록>(국역본, http://sillok.history.go.kr/, 2023년 9월 1일)을 검색해보았다.
『숙종실록』은 192건이 검색되었다.『숙종실록 보궐정오(補闕正誤)』에는 17건이 검색되었다.
『숙종실록 보궐정오』란『숙종실록』의 일부를 수정하여 바로 잡은 것이라는 뜻이다.
『숙종실록』의 기록은 1674년(숙종 즉위년) 8월부터 1720년(숙종 46년) 6월까지 숙종이 조선 국왕으로 재위했던 45년 11개월간 조정 내외에서 일어난 국정 전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총 65권 73책으로 되어 있다.

이 실록의 편찬은 1720년(경종 즉위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숙종과 희빈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경종은 소론의 지지를 받아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정권은 노론이 장악하고 있었다. 노론 측은 나이가 6살 더 어린 동생인 연잉군(후일의 영조)을 지지했다. 하지만 처음에『숙종실록』편찬은 노론인 김창집(金昌集)이 총재관(摠裁官)이 되어 시정기(時政記),『승정원일기』등 기록을 바탕으로 실록 편찬을 담당했다.
그런데 1달 뒤인 12월에 소론 측의 김일경(金一鏡) 등이 신축옥사(辛丑獄事)를 일으키고 연달아 다음 해에는 임인옥사(壬寅獄事)를 일으켜 노론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신임옥사(壬寅獄事)는 1721년 연잉군(후일의 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하여 동생인 경종을 대리청정하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소론 측의 반격으로 실패로 돌아가 노론이 축출된 사건이다. 1722년에 일어난 임인옥사는 노론측이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을 계기로 김창집을 위시하여 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측 대신들이 화를 당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으로 소론 측이 정권을 잡고『숙종실록』의 편집도 장악했는데 대신이던 조태구(趙泰耉)가 총재관이 되어 그 아래 각 방의 당상 및 낭청의 대부분을 소론 측 관리로 바꿔서 편찬을 진행했다.

그런데 경종은 재위 4년만인 1724년 8월에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경종은 즉위 초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세자 시절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경종이 사망함으로써 영조가 왕위에 오르고 조정의 정세도 급변하여 다시 노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숙종실록』책임자도 노론 측 관료로 바뀌었다. 이후 노론의 관리들이 편집작업을 계속하여 1727년(영조 3년) 9월에 인쇄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이때 정미환국(丁未換局)이 일어났다.

영조는 즉위한 뒤 당쟁의 폐단을 통감하고 탕평책을 펼쳤다. 그래서 당색이 약한 온건한 인물로 인사를 개편하여 정국을 변환시켰는데 이를 정미환국이라고 한다. 노론이 정권을 잡았으나 소론 측 관료들도 불러들여 조정의 업무에 참여시켰다.

이로써 실록 편찬도 소론의 의견을 듣게 되었는데 소론 측은 노론이 편찬한 실록에 잘못이 있다고 개수(改修)를 요구하였다. 노론에 불리한 일부 기사는 삭제하거나 일부러 잘못되게 기록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정은 또다시 장기적인 시일이 걸리고 번잡하므로 각 권의 끝에 빠진 기사를 보충해 넣거나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아 싣게 되었다. 이것이『숙정실록 보궐정오(補闕正誤)』이다. 이 책은 별도로 실록보궐청(實錄補闕廳)을

설치하여 편찬하였으며 1728년 3월에 인쇄를 마치고 노론이 편찬한 실록과 합쳐서 각 사고(史庫)에 보관하였다.

율곡이 사망한 뒤 숙종 시대까지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율곡 기록을 보면 각 실록별로 다음과 같다.

『광해군일기 중초본』22건(『광해군일기 정초본』은 18건)
『인조실록』63건
『효종실록』32건
『현종실록』57건(『현종개수실록』은 96건)

이들 건수와 비교해보면『숙종실록』의 기록 건수는 이상하게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율곡에 대한 기록이 숙종 시대에 들어와 폭증한 것이다.
율곡(1536년~1584년)은 중종 31년에 태어나 그 이후로 명종(明宗, 1534년~1567년)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선조(宣祖, 1552년~1608년) 임금을 모셨다. 율곡 생전에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건수로 율곡의 일이 언급되어 있다.

『명종실록』13건
『선조실록』203건(『선조수정실록』은 245건)

『숙종실록』의 율곡 기록 건수(192건)가 율곡이 살아 있을 때 일을 기록했던『선조실록』의 기록(203건)에 육박한다는 것은 율곡에게 숙종 시대(재위: 1674~1720)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임을 알려 준다. 율곡이 사망한 뒤 100여 년이 지난 숙종 시대에 율곡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참고로『숙종실록』이후의 실록에서 율곡 관련 기사 건수는 다음과 같다.

『경종실록』7건(『경종수정실록』4건)
『영조실록』76건
『정조실록』55건
『순조실록』23건
『헌종실록』2건
『철종실록』8건
『고종실록』30건
『순종실록』1건

역시『숙종실록』율곡에 대한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 시대에 율곡은 어떠한 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언급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